

盧 서거 정국 분석 및 2010 지방선거 전망

“MB·한나라당 독선 지속 땐 내년 지방선거 민심 등 돌릴 것”

■ 여론조사기관 원지코리아 이근형 대표

2010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내년 선거 결과에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선거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정치컨설턴트 이근형(주)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로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의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



이 대표는 LG에드 마케팅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다가, 95년부터 김대중 대선후보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밝은세상’에서 전략기획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5년 후에는 노무현 대선후보 대선기획단에서 전략기획팀장을 맡는 등 두 번의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를 담당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이후, ‘노무현 신드롬’이 일고 있는데, ▲참여정부 초반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기초가 옳다고 판단했고 진정성도 인정했으나, 그것을 실현해줄 역량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임기 후반에는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못내 진정성마저도 부정됐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 순탄치 못한 1년이 흐르고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보니,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것이 추모의 열기로 확산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5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역전했다는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향후에 정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지지를 역전 구도의 지속 여부는 우선, 한나라당 내의 해신은란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정권이 이 요구에 떠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두 번째는 청와대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다. 6월에 처리 예정돼 있는 미디어법안 등 이른바 MB법안들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야

당의 반발로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여권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한나라당 내 계파 간 갈등 조정이다. 다만,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민주당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전망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라도 10월 재보선은 여당에 버거웠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치러진 두 번의 보궐선거(국회의원+기초단체장) 15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경복 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10월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대북제재 필요하지만 대화의 문 열어놔야”

DJ,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인터뷰 밝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제재가 됐건 제재는 필요하고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북한이 6자회담과 대화의 틀로 다시

돌아올 문호는 열어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금융제재 등 북한으로선 뼈아픈 제재를 할 것이지만 앞으로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6자 회담을 다시 열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이 절대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가 이뤄지면 결국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라며 “또 하나는 후계자 문제로, 김 위원장이 사고(유고)가 나기 전에 미국과 평화나, 결전이나를 결말지어야 하는데

미국이 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김 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선 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중동·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자,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 방문을 제의했지만 김 위원장이 국제감각이 없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방미를 미뤄 무산됐다”는 비화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佛여객기 잔해 수습

브라질 프리킥함(艦) 공스티수무이사용호의 수병들이 7일(현지시간) 대서양에서 에어 프랑스 여객기의 잔해를 회수하고 있다. 이 여객기는 지난 1일 대서양에 추락, 탑승객 228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까지 17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프리킥함(艦) 공스티수무이사용호의 수병들이 7일(현지시간) 대서양에서 에어 프랑스 여객기의 잔해를 회수하고 있다. 이 여객기는 지난 1일 대서양에 추락, 탑승객 228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까지 17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연합뉴스

유럽의회 ‘우향우’...11개국 집권당 패배

7일 끝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영국과 헝가리, 그리스 등 모두 11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의회 사무국이 출구조사 결과 및 중간 개표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 전문업체 TNS와 공동으로 산출한 결과, 27개국 가운데 영국의 집권 노동당은 보수야당에 10% 포인트 가량

크게 뒤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4년 선거에서는 보수야당이 26.7%(27석), 노동당이 22.6%(19석)로 4.1%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번엔 간격이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조기 개각을 단행한 고든 브라운 총리가 당 안팎으로부터 또 다시 거센 사퇴 압력에 시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운 총리는 의원들의 주택수당 부당청구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민 헝가리의 집권 사회당(SD)도 22석 중 4석을 차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北 = 테러지원국

힐러리, 재지정 검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최근 증거들을 찾아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테러지원활동을 벌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테러지원 재지정 검토가 시작단계라며 “우리는 방금 이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그들의 행동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8월 21일, 27일, 14일, 30일. 8월 21일 10:00, 27일 10:00, 14일 10:00, 30일 10:00. 한빛고시학원. 02-744-1109.

제주도 여행 89,000원. (주)제주무궁화관광. 064-744-1109. 패키지 여행, 제주여행, 제주도 여행, 제주도 여행, 제주도 여행.

아이엘리시아.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02-671-1199.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